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허은주, 김은정*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Eun-Ju Heo, Eun-Jeo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남 J시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3~4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최종 285부를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인 성격과 학교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만족도는 학교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소를 구분하여 전공선택 동기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유의하였으나 관계만족은 내재적 동기만 유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를 높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For the goal, the study made a questionnaire survey of 300 nursing students in their 3rd or 4th year of a college in J City. 285 sheets were finally analyzed using the SPSS 25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Concerni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fluence on the abovementioned self-efficacy between personality and school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significantly varied depending on school satisfaction.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existed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Either intrinsic or extrinsic motivation affected the foresaid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a significant, positive way. Regarding the influence of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on thos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curriculum and perception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trinsic motivation as well as extrinsic one, while relationship satisfaction had such effect only on intrinsic motiv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ategies for raising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should be taken, resultantly improving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Major selection motiv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Jeong Kim(6166jin@naver.com)

Received October 31,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December 2,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대학생의 시기는 직업의 선택과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다[1].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만[2]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인 진로의 지도가 부족할 수 있다[1]. 이러한 점은 학생이 전공선택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3]. 대학 부적응은 진로 준비와 진로 결정 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4,5], 전공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측면의 손실이 발생하고 대학생의 휴학, 자퇴, 전과 등의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6].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장래를 생각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기보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나 취업전망,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한다[7]. 입학 후 전공 교과목의 방대한 내용을 습득해야 하고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교육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 현실은 타 전공자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량을 경험하게 되고 교육환경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느낀다[8,9].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전공 사이에서 불일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전공만족도와 학습 흥미가 낮아지고 대학생활의 부적응이 발생되며 나아가 졸업 후 업무환경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6,10]. 대학생으로서 전공선택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며 개인의 삶과 가치관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기에[11] 전공선택 동기는 학생이 학과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 특성과 학과 특성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선택을 높이는 것이다[12].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긍정적 적응을 높이고 미래의 취업에 대한 그들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학습성취도[13], 진로결정수준[14], 대학생활의 만족도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15], 학과적응[16], 대학생활의 적응[8]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구성개념을 구분하여 진로나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전공선택 동기는 선행연구에 따라 2개나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2,11,17]하고 있으며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을 선택하는 원인이 흥미와 적성, 전공을 통한 자기개발 가능성 등 행동에 대한 통제 위치가 내재적이었는지, 전공의 인기나 취업 전망 등 통제 위치가 외재적이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17]. 전공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외부의 강압이나 보상보다는 자신의 재미나 도전을 위해 행동하며[18], 외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 보너스, 승진 등 가시적인 보상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19].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학습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과거에는 인식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목표 성취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재적 동기와 더불어 외재적 동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개념으로 목표한 과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2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후천적 요인으로 진로에 대한 주도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1,22].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목표설정, 자기평가, 진로계획, 정보수집,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22-24].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이며[25,26], 소속학과에서 전공을 학습하는 동안 개인이 인지하는 충족감, 기대, 성취, 가치, 신념 등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진로에 대한 공감대이다[11].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면서 개인이 가지는 학과에 대한 신념, 가치, 감정으로 전공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26].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발휘하여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대학생활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게 된다[27]. 그리고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

은 학생일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며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2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하위구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에 따른 학생 진로 지도와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남 J시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8개로 하였을 때 최소 160개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300명으로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28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 동기는 Song[17]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동기 5문항 총 13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 동기(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Song[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내재적 동기가 .93, 외재적 동기가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내재적 동기가 .94, 외재적 동기가 .80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Ku 등[1]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평가 3문항, 정보수집 2문항, 목표설정 3문항, 진로계획 3문항, 문제해결 2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1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u 등[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알 수 없으나 하위 구성개념 5개 요인의 신뢰도가 모두 .70을 초과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Jeong[30]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2문항, 인식만족 3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11문항을 사용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교과만족 1문항이 다른 요인에게 묶여서 한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g[3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알 수 없으나 교과만족 .91, 관계만족 .85, 인식만족 .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8이고 교과만족 .87, 관계만족 .85, 인식만족 .76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1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로서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지도교수가 아니거나 연구자의 수업이 없는 반에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철회 가능성을 안내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글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 파일 주소 링크를 통해 모바일의 방법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전공선택 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4명(11.9%), 여자 251명(88.1%)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152명(53.3%), 4학년 133명(46.7%)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20-25세 226명(79.3%), 26-30세 36명(12.6%), 31세 이상이 23명(8.1%)으로 나타났다. 본인 성격에 대해 매우 내성적이다 9명(3.2%), 내성적이다 120명(42.0%), 모르겠다 29명(10.2%), 외향적이다 112명(39.3%), 매우 외향적이다 15명(5.3%)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만족도는 매우 불만 37명(13.0%), 불만 76명(26.7%), 보통 115명(40.3%), 만족 44명(15.4%), 매우 만족 13명(4.6%)으로 나타났다.

3.2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정도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54점(±.66)이었고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요소는 외재적 동기 3.77점(±.65), 내재적 동기

3.40점(±.91)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3점(±.55)이며,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2점(±.60)이고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소는 인식만족 3.88점(±.73), 교과만족 3.48점(±.67), 관계만족 3.11점(±.85)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N)	%
Gender	Male	34	11.9
	Female	251	88.1
Grade	Grade 3	152	53.3
	Grade 4	133	46.7
Age(year)	20-25	226	79.3
	26-30	36	12.6
	>31	23	8.1
Personality	Very introvert	9	3.2
	Introvert	120	42.0
	Do not know	29	10.2
	Extrovert	112	39.3
	Very extrovert	15	5.3
School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37	13.0
	Dissatisfied	76	26.7
	Commonly	115	40.3
	Satisfied	44	15.4
	Very satisfied	13	4.6
Total		285	1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본인 성격($F=5.007, p=.001$)과 학교만족도($F=4.206, p=.003$)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t=-1.739, p=.080$), 학년($t=-1.502, p=.134$), 나이($F=.516, p=.597$)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본인 성격의 경우 '매우 내성적이다'가 '모르겠다', '외향적이다', '매우 외향적이다' 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만족의 경우 '매우 불만', '불만', '보통'에 비해 '매우 만족'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는 학교만족도($F=23.98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t=-1.080, p=.281$), 학년($t=1.543, p=.124$), 나이($F=1.630, p=.198$), 본인 성격($F=1.679, p=.155$)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검증 결과 학교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에 비해 '만족'과 '매우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Variable	M±SD	Range
Major selection motivation	3.54±.66	1-5
Intrinsic motivation	3.40±.91	1-5
Extrinsic motivation	3.77±.65	1-5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3.23±.55	1-5
Satisfaction in major	3.52±.60	1-5
Curriculum satisfaction	3.48±.67	1-5
Relationship satisfaction	3.11±.85	1-5
Perception satisfaction	3.88±.73	1-5

3.4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공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02, p<.01$),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교과만족($r=.333, p<.01$), 관계만족($r=.225, p<.01$), 인식만족($r=.202, p<.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동기의 외재적 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193, p<.01$), 전공만족도의 교과만족($r=.193, p<.01$), 관계만족($r=.119, p<.05$), 인식만족($r=.346, p<.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의 교과만족($r=.152, p<.01$), 관계만족($r=.108, p<.01$), 인식만족($r=.200, p<.01$)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모두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

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값이 0과 4에 가깝지 않고 2의 근방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내재적 동기($\beta=.170, p=.004$)와 외재적 동기($\beta=.159, p=.00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8%이었다.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공만족도에 내재적 동기($\beta=.282, p<.001$)와 외재적 동기($\beta=.21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4.3%이었다.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만족에 내재적 동기($\beta=.306, p<.001$)와 외재적 동기($\beta=.132, p=.02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2.1%이었다. 관계만족에 내재적 동기($\beta=.21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외재적 동기($\beta=.078, p=.190$)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0%이었다. 인식만족에 내재적 동기($\beta=.139, p=.014$)와 외재적 동기($\beta=.30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3.2%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평균 3.54점(5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Im과 Lee[14]의 연구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평균 3.63점(5점 만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고, 일반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를 측정 한 Park과 Kim[3]의 연구결과인 평균 3.14점(5점 만점)보다 높았다. 전공선택 동기의 외재적 동기가 3.7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내재적 동기가 3.4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Im과 Lee[14]의 연구에서 외재적 동기 3.83, 내재적 동기 3.51점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Maj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5)

Variable	Categori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08±.49	-1.739 (.080)	3.42±.60	-1.080 (.281)
	Female	3.26±.55		3.54±.60	
Grade	Grade 3	3.19±.55	-1.502 (.134)	3.58±.53	1.543 (.124)
	Grade 4	3.29±.55		3.47±.67	
Age(year)	20-25	3.25±.52	.516 (.597)	3.56±.61	1.630 (.198)
	26-30	3.12±.66		3.37±.54	
	>31	3.15±.55		3.47±.61	
Personality	Very introvert ^a	2.66±.45	5.007 (.001) a<c,d,e	3.57±.36	1.679 (.155)
	Introvert ^b	3.20±.52		3.48±.60	
	Do not know ^c	3.10±.69		3.35±.74	
	Extrovert ^d	3.32±.48		3.59±.55	
	Very extrovert ^e	3.50±.73		3.74±.65	
School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a	3.25±.67	4.206 (.003) a,b,c<e	3.02±.72	23.986 (<.001) a<c<d,e
	Dissatisfied ^b	3.10±.51		3.39±.57	
	Commonly ^c	3.21±.51		3.52±.44	
	Satisfied ^d	3.36±.51		3.95±.46	
	Very satisfied ^e	3.70±.55		4.28±.47	

Table 4.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MSM		CMSr(ρ)	SM		
		IMr(ρ)	EMr(ρ)		CSr(ρ)	RSr(ρ)	PSr(ρ)
MSM	IM	1					
	EM	.199(ρ<.01)	1				
CMS		.202(ρ<.01)	.193(ρ<.01)	1			
SM	CS	.333(ρ<.01)	.193(ρ<.01)	.152(ρ<.01)	1		
	RS	.225(ρ<.01)	.119(ρ<.05)	.108(ρ<.01)	.467(ρ<.01)	1	
	PS	.202(ρ<.01)	.346(ρ<.01)	.200(ρ<.01)	.588(ρ<.01)	.395(ρ<.01)	1

1) MSM: Major Selection Motivation, IM: intrinsic motivation, EM: extrinsic motivation CM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M: Satisfaction in Major, CS: curriculum satisfaction, RS: relationship satisfaction, PS: perception satisfaction

Table 5.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ρ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onstant	2.386	.203		11.776	<.001
	Intrinsic motivation	.101	.035	.170	2.893	.004
	Extrinsic motivation	.133	.049	.159	2.704	.007

F=9.782 (ρ<.001), R² = .065, Adj. R² = .058

Table 6.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Major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Satisfaction in major	Constant	2.161	.212		10.201	<.001
	Intrinsic motivation	.184	.037	.282	5.037	<.001
	Extrinsic motivation	.195	.052	.212	3.785	<.001
F=24.609(α .001), R^2 =.149, Adj. R^2 =.143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urriculum satisfaction	Constant	2.196	.242		9.080	<.001
	Intrinsic motivation	.226	.042	.306	5.397	<.001
	Extrinsic motivation	.137	.059	.132	2.330	.021
F=20.592(α .001), R^2 =.127, Adj. R^2 =.12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elationship satisfaction	Constant	2.068	.315		6.573	<.001
	Intrinsic motivation	.193	.054	.210	3.554	<.001
	Extrinsic motivation	.101	.077	.078	1.315	.190
F=8.440(α .001), R^2 =.056, Adj. R^2 =.050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Perception satisfaction	Constant	2.164	.258		8.390	<.001
	Intrinsic motivation	.110	.045	.139	2.464	.014
	Extrinsic motivation	.355	.063	.309	5.652	<.001
F=22.671(α .001), R^2 =.139, Adj. R^2 =.132						

하지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3]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는 3.54점, 외재적 동기는 2.87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에서 직업의 안전성, 전공의 인기, 취업 전망, 주위의 권유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의 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있음[15]을 반영하는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23점(5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7]의 연구에서 3.33점(5점 만점)으로 나온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Kim[31]의 연구에서는 3.38점, Im과 Lee[14]의 연구에서는 3.5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실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간호학과 3, 4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원활한 임상실습이 어려워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3.52점(5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만족도는 Son 등[32]의 연구에서 평균 3.35점(5점

만점), Park 등[7]의 연구에서 평균 3.7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만족도는 Jeong 등[33]의 연구에서 평균 3.60점(5점 만점), Park과 Kim[3]의 연구에서 평균 3.3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인식만족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과만족 3.48점, 관계만족 3.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세 이상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Shin[16]의 연구에서 인식만족이 4.32점, 교과만족 3.68점, 관계만족 3.56점 순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Oh[27]의 연구에서는 인식만족 4.26점, 관계만족 3.26점, 교과만족 2.14점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나지만 선행연구와 본 연구 모두 인식만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전망 등으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15] 자연스럽게 인식만족이 교과만족이나 관계만족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본인 성격과 학교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 성

격의 경우 '매우 내성적이다'가 '모르겠다', '외향적이다', '매우 외향적이다'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만족의 경우 '매우 불만', '불만', '보통'에 비해 '매우 만족'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보다 '만족'과 '매우 만족'이 학교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34]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35]의 연구에서 대학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4,36].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성적, 교우관계, 학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교만족도에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차이가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하위영역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소를 구분하여 전공선택 동기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유의하였으나 관계만족은 내재적 동기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전공선택 동기의 도구를 가지고 하위구성개념을 구분하여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u 등[1]의 연구와 조리 외식 전공 대학생의 연구인 Chae[10]의 연구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공선택 동기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므로 [10] 전공선택 동기 시 개인의 적성, 흥미를 고려하는 내재적 동기와 취업 전망, 안정성, 주변의 권유 등을 고려하는 외재적 동기에 대하여 학생 개인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 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공선택 동기를 고려하여 학생 지도 및 학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전공선택 동기의 도구를 가지고 하위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영향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항공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전공선택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2]의 연구에서 전공선택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하였고 전공만족도의 전공기대와 교과만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5]의 연구에서 전공선택 동기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으며 간호대학생 중 2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6].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모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을 토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간호학과에서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과 홍보 시에 전공선택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간호학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재학생의 경우 흥미와 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년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공의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재학 중 간호사로서 진로를 준비하고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학과 운영에서 이론 및 임상 실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학과의 운영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남 J시의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3~4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 285부를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선택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의 하위영역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소를 구분하여 전공선택 동기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모두 유의하였으나 관계만족은 내재적 동기만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과 운영에 있어 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적성, 흥미를 고려하는 내재적 동기와 취업 전망, 안정성, 주변의 권유 등을 고려하는 외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학생의 진로 지도 및 학과 운영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학년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과운영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에 반영하여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입생 유치단계에서 전공선택 동기를 강화한 입시 홍보를 하고 간호학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예비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 일개의 대학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투입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등을 통제하여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구성개념이 선행연구에 따라 차이

가 있으므로 향후 다른 도구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전공선택 동기가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A. Ku, M. S. Seo & S. S. Ahn. (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iency,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4), 49-74.
DOI : 10.35273/jec.2020.10.4.003
- [2] H. J. Kwon. (2020).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otivation of Major Choice on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7(3), 183-198.
DOI : 10.22155/JFECE.27.3.183.198
- [3] A. S. Park & H. K. Kim. (2016).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511-509.
DOI : 10.5762/KAIS.2016.17.2.511
- [4] S. J. Lee & J. L. Lee. (2015). The Effects of Job Search Stree on Career Maturity among the Students of Security Services.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42, 179-203.
- [5] H. S. Joo & C. Y. Jung. (2012).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areer Decision Status, Career Stre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3), 73-97.
- [6] B. W. Seo. (2013).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3(2), 65-81.
- [7]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 M. S. Lee.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1), 35-45.
DOI : 10.21032/jhis.2018.43.1.35
- [8]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 DOI : 10.5762/KAIS.2014.15.5.2937
- [9] S. O. Choi, J. K. Park & S. H. Kim.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DOI : 10.5977/jkasne.2015.21.2.182
- [10] H. S. Chae. (2017).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service Management.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3(5), 34/47. DOI : 10.20878/cshr.2017.23.5.004
- [11] Y. M. Jeong. (2019).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ed on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Tourism.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3(6), 717-738. DOI : 10.1108/03090569710176655
- [12] S. H. Yoon & J. S. Lee. (2019).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3(7), 675-694. DOI : 10.18604/tmro.2019.23.7.31
- [13] E. K. Joo & J. W. Han. (2021).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1), 2563-2578. DOI : 10.22143/hSS21.12.1.181
- [14] M. S. Im & S. M. Lee. (2020).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Motives for Major Selec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1(5), 71-84. DOI : 10.22143/HSS21.11.5.6
- [15] Y. J. Kim, H. N. Yoo & M. J. Park. (2016).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61-270. DOI : 10.5762/KAIS.2016.17.10.10.261
- [16] B. H. Kim & J. H. Shin. (2016). The Influence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on Department Adaptation of Mature Learners in the Nurse Dept. of Colle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5), 141-166. DOI : 10.22143/HSS21.7.5.8
- [17] Y. J. Song. (2014).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 s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18] R. M. Ryan & E. L. Deci.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19] Y. J. Kim & S. R. Kang. (2009).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in UCC Usage and Creation-focused on Korea and U.S.A. *The Korea Contents Society*, 9(1), 223-237.
- [20]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 Prentice Hall.
- [21] J. C. Lee. (2013).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isty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3(1), 49-66.
- [22] J. H. Hong & S. H. Jeon. (2014). The Influence of Dance Mentor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31(2), 121-139.
- [23] H. J. Lee. (2018). *The Effect of motivation to select major and career decis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yonggi.
- [24] E. Y. Oh. (2019). *Effect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s of Airline Service Students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o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Kyonggi.
- [25] Y. J.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Target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who specialized in cooking/dining relat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Sung University, Busan.

- [26] Y. M. Jung. (2020). Effects of Perceived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 of Aviation Tourism on Work Values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4(5), 625-645.
DOI : 10.18604/tmro.2020.24.5.29
- [27] Y. S. Kim & E. J. Oh.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03-111.
DOI : 10.5762/KAIS.2016.17.7.103
- [28] J. Y. Lee, Y. M. Lee, S. Y. Park, M. J. Lee & Y. H. Jung. (2013).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06-616.
DOI : 10.5977/jkasne.2013.19.4.606
- [29] M. S. Jung & H. J. Kwon. (2015).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56-265.
DOI : 10.5977/jkasne.2015.21.2.256
- [30] J. A. Jeong.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Plan: Focused on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s.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8(1), 217-244.
DOI : 10.15706/jksms.2017.18.1.011
- [31]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10-219.
DOI : 10.5977/jasne.2016.22.2.210
- [32] B. H. Son, Y. M. Kim & I. G. Jun. (2011).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3), 240-249.
DOI : 10.5807/kjohn.2011.20.3.240
- [33] B. Jeong, S. H. Ahn & Y. J. Oh.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1), 159-181.
DOI : 10.35273/jec.2021.11.1.007
- [34] H. S. Yoo. (2014).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Participants in College Career Cours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1), 89-111.
- [35] H. J. Cho. (2014).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4), 103-127.
- [36] M. O. Chae. (2019).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4), 229-238.
DOI : 10.14400/JDC.2019.17.4.229
- [37] M. H. Lee. (2018).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Department Satisfaction,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4), 1605-1620.

허 은 주(Eun-Ju Heo)

[정회원]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 박사)
- 2020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연구, 간호교육
· E-Mail : hstorylab@naver.com

김 은 정(Eun-Jeong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 간호교육
· E-Mail : 6166jin@naver.com